

1.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 대해 개인적 공감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운명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나)와 차이가 있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개인적 주체로서의 공감을 보인다. 이는 (가)에서 아이히만이 유태인을 위해 직업학교를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다는 증인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시적 화자 또한 비둘기의 답답함을 동정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와 달리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비탄을 자신의 비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필연적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비롯해 파트로클로스와도 같은 존재라고 간주한다. 이는 개인적 공감 대신 운명적 공감을 함으로써 뤼카온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편, (가)에서 아이히만은 유태인에게 개인적 주체로서의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에서 아킬레우스가 개인적 공감에는 실패했지만 운명공동체로서의 공감은 성공한 것과 크게 다르다. 아이히만은 국가의 명령 집행자로서의 자신을 선한 개인적인 자신과 분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인자로서의 아이히만은 단지 사회의 일부일 뿐이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동적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당화 한다는 점은 운명적 공동체임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아킬레우스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아이히만은 국가에 대해 공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차이는 확연하다.

(나)와 비교했을 때 (다)와의 차이는 더욱 크다. (나)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비둘기에 공감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비둘기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게 된다. 비둘기의 현재 답답함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 양식, 습성까지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강도의 동정적 공감을 보여준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죽음을 전혀 동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

2. 공감은 상상을 통해 개인적 주체로서의 자신이 폭력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타자가 행한 폭력을 또는 타자가 당한 폭력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해하는 것이며, 상상은 역지사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또한 그때의 주체는 본질적 자아를 가진 개인이어야 한다. 이는 (가),(나),(다)의 각 주체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가)의 아이히만은 상상이 결여되어 있다. 학살의 책임자로서의 주체는 사회적 자신이며 따라서 폭력의 강도와 개인적 자신은 온전히 무관하게 된다. 아이히만은 상상과 주체라는 두 조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불가능하고 폭력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당화된 것이다.

한편, (다)의 아킬레우스 또한 뤼카온의 비탄을 공감하지 못한다. 이때,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죽음을 자신과 파트로클로스의 죽음과 비교하며 그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상상이 역지사지를 가능하게 하더라도 운명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공감이 불가능하다. 운명은 폭력의 주체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폭력의 주체는 온전한 개인적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아킬레우스 역시 공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반면 (라)의 워딩턴은 상상을 통해 폭력의 개인적 주체가 되었고 그 결과 공감에 성공했다. 상상을 통해 살의가 인간 보편적인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현실의 용서와 연결된다. 역지사지가 실현된 것이다.

또한 주체가 (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과 (다)의 운명적 유한성에 기댄 존재로서의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개인적 주체라는 점에서 이 또한 공감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상과 주체라는 두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여되면 공감이 불가능하며 이는 폭력의 상황과 연결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는 공감에 실패한 것이고 (나)는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